

†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금주 미사 독서: 고미현 다미아나, 윤영미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미사 독서: 한승호 임마누엘, 이유진 수산나	봉헌금: \$ 256
금주 미사 복사: 최고은 소피아	교무금: \$ 130
다음 주 미사 복사: 김지원 카린	<u>기부금: \$ 100</u>
금주 미사 해설: 윤지희 데레사	합계: \$ 486
다음 주 미사 해설: 최고은 소피아	봉헌봉사: 윤보연 소화데레사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다음 주 봉헌봉사: 김보미 로사
회 계: 한진 베드로, 황성필 요한	* 매월 마지막 주는 2 차헌금이 있습니다.
친교실 정리: 학부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사제관 (10월 5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다음 기도모임 9월 첫주 금요일(장소 계시관 참고)
교리 모임	미정
골프 모임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장소: Tumbledown Trail)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당신의 사랑 안에 모으기를 바라십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선교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보고 배워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의 체험을 나누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사명은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사랑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수렴됩니다.

근래에 신자 증가율이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냉담 교우들도 늘어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점점 개인적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살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을 잘 모릅니다. 선교란 이념이나 세력의 확장이 아닙니다. 선교는 신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그 구성원들이 사랑으로 일치된 삶을 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다시금 공동체 삶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임 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거주사제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바오로
(608) 628-7977

[연중 29 주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2, 1-5

<제 2 독서> 로마서, 10, 9-18

회답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환호송

복 음

마태복음, 28, 16-20
그때에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의 성가] 시작: 15 봉헌: 211 성체: 178 파견: 450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 년 10 월 20 일



유신체제라는 뿌리 깊은 악

-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김인국 신부 인터뷰 -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 2012. 10. 15)

군사쿠데타 이후 연이은 헌법개정으로 12 년 간 권좌를 지키던 대한민국의 3 선 대통령은 1972 년 10 월 17 일 ‘유신’ 을 선언함으로써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임기를 4 년에서 6 년으로 연장하며 연임제한을 철폐하는 등 헌법을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활동을 중지시킴으로써 모든 권한을 대통령 일인에게 집중시켰다. 그 과정에서 유신독재에 맞서 싸웠던 많은 이들이 감옥에 끌려가 무참히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이하 사제단)이 ‘10 월 유신 40 주년에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하는 전국 시국 기도회’ 를 10 월 22 일 월요일 오후 7 시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사제단 총무인 김인국 신부(청주교구 옥천성당 주임)를 만났다.

그는 “오늘까지 유신체제는 한 순간도 숨이 멎은 적이 없었다. 심지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유신의 독버섯은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하고 억척스럽게 피어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찬란하게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말의 부끄러움도, 이렇다 할 문제의식도 없이 말이다. 박근혜 보다 박근혜에 마음을 빼앗긴 민심이 더 문제” 라고 말했다. 때문에 대통령 선거 정국을 앞둔 2012 년 10 월은 ‘유신체제를 발본색원할 것인지, 부활시킬 것인지를 성찰해야 하는 중요한 때’ 이며 이는 ‘교회의 몫’ 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10 월 22 일 유신헌법공포 40 주년을 맞아 시국기도회를 연다. 이는 잊고 지냈던 유신체제의 악(惡)을 직면하기 위해서다. 상처와 고통은 여전한데 우리는 서둘러 잊고 있었다. 유신체제는 매우 악질적인 통치였다. 악에 대한 성찰은 교회의 일이다. 아직도 사람들은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누가 이를 알려주어야겠는가. 교회가 아니면 또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는 박근혜에 향한 지독한 성원과 열광을 뒤집어 보면 사람들의 어리석은 탐욕과 저만 아는 이기심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박정희 군사독재가 천민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 천민자본주의란 대다수의 희생으로 소수를 살찌우는 시스템을 말한다. 당장 우리 사회의 자본의 형포를 보라. 중산층까지 몰락시키고 공공재인 강, 바다, 갯벌까지 죄다 팔아먹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여긴다. 자손만대까지 물려줘야 할 공동의 유산을 빼앗기고도 박수를 친다. 참 환장할 노릇이다. 용산 남일당 망루에 올라간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평택 쌍용차 공장 옥상에 올라간 노동자들을 어떻게 때려잡았는지 멀쩡히 보면서도 어떻게 열광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형제를 때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제 고향을 없애고, 할아버지가 어렵게 마련한 논 위에 고압 철탁을 세워도 좋다고 하는 백성이다. 이게 어리석은, 혹은 ‘얼이 썩은’ 백성이 아니고 무엇인가.”

김인국 신부는 이것이 유신체제의 학습효과가 뼈 속 깊이 스며든 때문이며, 그래서 유신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에 대한 일부의 열광은 과거 히틀러에 대한 독일사회의 열광과 비슷한 면이 있다. 독일도 1950 년대까지는 국민들이 히틀러를 최고로 여겼다. 하지만 복지사회로 들어서면서부터 극소수 극우파에서만 그를 흠모하고 있다. 한국도 새로운 사회를 경험하고 나면 낡은 미신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민주화’ 에 대해서도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요즘 너도나도 경제민주화를 주장한다. 심지어 한나라당도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로고를 “적색” 으로 바꾸고는 경제민주화를 천명하고 있다. 이런 액션에 속지 말아야 하는데 ‘새누리’ 가 대체

† 공지사항

1. 미사 후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목위원, 각 구역장, 성모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무슨 뜻인가? 신천지라는 말이 아닌가. 신흥이단 신천지처럼 새누리도 수상하다. 그렇게 당하면서도 열광하는 것은 가히 악의 신비라 할만하다. 무엇이 경제민주화일까? 통치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국민들이 정하는 게 정치민주화라면, 경영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노동자들이 정하면 그게 경제민주화가 아닐까. 최근 전남대 김상봉 교수(<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김상봉, 꾸리에북스, 2012)가 소개한 한 구상인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고,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주는 사회. 그런 상태라야 경제의 민주화다. 이런 민주주의가 아니면 사람 맘대로 뽑고, 멋대로 해고시키는 일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번번이 골목상권을 울리고 대형마트를 편드는 구 한나라당 세력이 경제를 민주화한다고? 소가 웃을 일이다.”

이어서 그는 유신체제를 ‘옛날이야기’ 로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 “잘 보라! 그리고 아파하라!” 고 말했다. “유신권력은 결코 과거형이 아니다. 현재진행형이다. 평화시장의 전태일과 YH 무역의 김경숙은 지금도 똑같이 죽어가고 있다.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4 대강, 제주 구름비를 보고 제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한 다음 생각해보자. 당장 나에게 닥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상관없다고 여기면 국가와 자본은 더욱 교만해져서 폭력을 휘두를 것이다.” 또한 그는 “‘힐링’ 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난무하는 측면이 있다” 며 너무나없이 위로를 구하려는 세대에 일침을 가했다. “힘든 거 알지만 그렇다고 너무들 기가 꺾이면 곤란하다. 특히 젊은이들은 좀 씩씩해야 한다. 유신시대의 젊은이들도 어렵게 살았다. 수많은 학생들이 경찰에 끌려가고 감옥에 붙들려갔다. 고문도 당했다. 지금보다 그 때가 더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다. 지금 아프다면,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이를 봐줘라. 그렇게 해서 이 재미없는 ‘의자놀이’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를 다룬 공지영 작가의 르포)를 깨버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무기력과 우울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다.”

“우리는 거리를 성전으로 삼아 기도하고 있다. 벌써 5 년이 넘도록 월요일마다 우리와 함께 많은 수도자들과 교우님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 고요한 곳에서 기쁜 힘을 시끄러운데서 쓰고 있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좋을 때가 아니라서 저마다 길을 나서 여기 모이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무력하다. 그저 얻어맞고 터져서 상처받은 사람들 곁에 있어주려는 것뿐이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하느님의 살아계심과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를 잊지 않도록 한 점의 촛불이 되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교회와 세상이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데 교회에 속한 이들이 왜 세상일에 그리 나서느냐고 묻기도 한다. 심지어 ‘빨갱이 사제’ 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참 딱한 일이다. 하지만 돌을 던져도 어쩔 수 없다. 우리 사제들은 목마른 사람에게 그저 한 사발의 냉수를 건네주려는 것뿐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퍼주고 싶을 따름이다. 세상과 이웃이 망하든 흥하든 그게 교회와 무슨 상관이냐고 해도 좋다. 그런 믿음을 나무라거나 배척할 생각은 없다. 충분히 존중할 터이니 서로의 생각대로 각자가 아는 신앙의 길을 성실하게 가면 된다. 각자 하느님 앞에서 책임질 일이다.” 끝으로 김인국 신부는 “생각의 깊이가 삶의 높이를 결정한다. 깊이 생각하는 만큼 높이 살 수 있다. 더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날, 서울광장에 함께 하자” 고 당부했다.